

# 현지조사 후기

## [연구주제: 대만문학의 이주노동자 재현과 이주노동자의 대만문학 창작]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유은하

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현지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7/24일~8/16일까지 24일간 대만 북동쪽에서 시작하여 서남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타오위안→타이베이→신베이→타이난→핑둥→가오슝), 주요 동남아 이주노동자(移工) 밀집 지역을 탐방하였고, 移工 지원단체 설립자·봉사자들, 각국에서 온 移工 및 신주민 2세대들을 만나 직접 인터뷰하고, 대만의 여러 저명대학 대만문학연구소 교수님들을 만나 자문을 구하고 토론하였습니다. 대만 문학 및 영화 속에 재현된 移工 형상 및 移工이 창작한 작품 분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移工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본 조사를 통해 풍부한 현장 정보 및 향후 지속적이고 확장적인 연구를 가능케 할 인적자원들을 얻었습니다.

동남아 移工 밀집지역 탐방의 경우, 타오위안 중리, 타이베이 필리핀거리, 신베이 미얀마거리, 타이난 기차역 일대, 가오슝 기차역 일대 총 5곳을 탐방하고 상인과 점원들을 인터뷰하였습니다. 타오위안 중리(中壢)는 매우 활기가 넘치는 곳으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방인들이 대만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대만인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어울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타이베이의 필리핀거리는, 제가 주요 분석 텍스트로 삼고자 하는 대만 영화 『피노이 선데이』의 주요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한데, 평일에는 한적한 데 비해 주말에는 매우 많은 필리핀 移工들이 예배와 여가를 위해서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신베이 중허에 위치한 ‘화신지에(華新街)’는 대만에서 가장 큰 미얀마 화교 동네로서, 이곳에서 미얀마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이드를 겸하고 있는 인터뷰참여자들을 통해, 대만 속 미얀마 커뮤니티에서 살아가는 일상과 고충, 미얀마 음식과 종교·문화에 대한 자부심 등에 대해 자세한 소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대만인과의 문제보다는, 미얀마인들끼리의

갈등, 특히 노인과 청년 세대 간 사고방식 차이로 인한 고민이 크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타이베이 필리핀거리나 신베이의 미얀마거리의 경우는 종종 외국인 여행객들이 방문하기도 하지만, 타이난 기차역 일대, 가오슝 기차역 일대의 移工 밀집지역의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이고 대만 현지인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기에, 이러한 지역을 탐방한 관찰기록은 매우 희소하고 향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현지조사 기간 移工 및 신주민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실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타이난의 移工 지원단체 「南南」 인터뷰를 통해서였습니다. ‘타이난(臺南)의 동남아(東南亞)’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이 단체의 관련인사들을 몇 차례에 걸쳐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다소 형식적이고 이상적인 답변을 해주었으나, 라포 형성 후에는 대만 내 移工들의 현실에 대해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었고, 대만인(대만 기관)으로서 移工들을 지원하면서 실망하거나 갈등을 겪은 여러 사례들도 공유해주었습니다. 또한, 대만인 부친과 동남아 모친을 둔 ‘신주민 2세대(新二代)’ 청년들을 소개해주어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기대 이상의 많은 정보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중, 태국인 어머니와 대만인 아버지를 둔 ‘신주민 2세대(新二代)’, 台泰鹿妹(1994년생, 사회운동가로서 활동할 때의 이름으로서, ‘대만-태국 사슴소녀’라는 뜻)와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는데, 그는 대만 내 신주민 및 이공들의 생활 현황과 고충, 시스템적인 문제를 광범위하고도 자세하게 소개해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암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시다 돌아가셨는데, 투병기간 동안 어머니께서 중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고생을 무척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대만 내에서도 주로 태국인들과 교류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중국어는 일상생활 회화가 문제없는 수준이었을 뿐, 암에 대한 의료진들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거나 수술 등의 의료 절차, 병간호,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참여자는 이 경험을 통해서, 대만의 신주민, 移工 들이 자신 또는 지인이 아플 때, 언어 문제로 인해 제반 상황을 이해하고 처리하기 막막하기가 그지없다는 점을 토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대만인 부친과 필리핀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대만-필리핀 신주민 2세대 남학생을 인터뷰하였는데, 이를 통해 대만 내 필리핀 이민자 및 移工들의 생활, 그리고 대만인들의 필리핀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 및 이로 인한 고충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대만의 여러 저명 교수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제 연구주제와 관련해서 숲을 보

는 법과 나무를 보는 법에 대해서 동시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黃美娥 교수님께서서는 최근 대만문학의 주요 연구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주셨고, 그 가운데 ‘移工’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맥락화할 수 있을지 상의해주셨습니다. 謝欣苓 교수님께서서는 대만문학 내 이민·여성·노동 주제 관련 전문가로서, 특히 ‘이민공문학상’의 정의와 개념에서부터, 연구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가르침과 조언을 주셨습니다. 대만의 ‘이민공(移民工)문학’이라 함은 ‘이민’, ‘문학’, ‘대만’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의 조합인데, 수상작을 정할 때 있어서 ‘문학의 허구성’과 ‘이민공 생활의 진실성’에 대해 가리는 어려움, ‘공중의 이익’에 대한 고려 및 동시에 세계적 수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을 만족해야 하는 점 등을 거론하시며, ‘이민공문학상’은 여타의 문학상과는 다르기에 지향점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점 등 다각도의 관점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들 외에도 移工·노동·다문화 등 유사한 주제로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들을 만나서, 관심사를 공유하고 풍부한 자료와 정보를 얻었습니다.

	
<p>&lt;대만대 대만문학연구소 黃美娥 교수님 인터뷰&gt;</p>	<p>&lt;Diversity 및 다양한 목소리(different voices) 포용을 강조하는 표어 전시품&gt;</p>

마지막으로, 현지조사 기간 어려웠던 점을 회상해보면, 매우 다양한 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에서 이주해온 移工들을 만나볼 수 있었으나 인터뷰할 때 의사소통이 예상보다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서비스업(미용, 네일아트 등)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발음의 문제는 있더라도 기초적인 중국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으나, 공장 등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는 기초 중국어도 전혀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동료들이 같은 동남아인들 이기에 중국어를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밥 먹다’와 같은 간단한 표현조차 중국어로 하지 못했기에 통역을 해줄 해당 국가 출신 유학생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 신주민 2세대(즉, 대만인과 동남아인 간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는, 대만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모국어가 대만 중국어였고, 학력도 높은 수준이었으며, 굉장히 다각적인 관점과 풍부한 문화 경험을 지니고 있어,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시간이 날 때에는 대만 일반인들과도 자주 접하고 교류하면서 移工 문제에 대한 대만인들의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금번 현지조사 기간 중 많은 대만 현지인과 移工, 신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인터뷰참여자들 거의 대부분이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임해주었습니다. 현지조사를 통해 실시한 인터뷰, 지역탐방 내용, 또한 移工 문학 및 영화와 관련해 수집한 서적 및 논문자료 등은 향후 제 연구논문의 주요 분석대상이자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것이며, 연구를 지속 확장하고 보충하여 학술지 투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현지조사 기회를 주신 서울대아시아연구소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